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Text to Image AI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기억을 잘하는 천재들에게 어떻게 기억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천재들은 모든 것을 이미지, 영상처럼 기억한다고 한다.

문장을 이미지, 영상으로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쉽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컴퓨터, 세탁기, 자동차, 비행기, 먹다, 자다, 등

그러나 아주 추상적인 단어는 쉽지 않다. 효율적인, 비참한, 능률, 비생산적인, 비판적인, 등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 아주 잘하는 놈을 따라하기로 했다. 바로 글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AI 이다.

어떤 글을 넣으면 그것을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이 녀석이 하는 것을 보고 나만의 단어-이미지 저장소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비생산적인 호두 공장" 이라는 글을 이미지로 만들면, "AI가 만든 이미지"와 "비생산적"을 연결하여 내가 기억하면 된다.

"단어 - 이미지" 저장소를 만들자